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3일 경기 이천시 SKMS 연구소에서 열린 '2026 New 이천포럼'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SK

### 최태원 SK 회장, 이천포럼서 AI 속도전 주문

# “전속력으로 AI 전환에 돌입해야”

전방위 AI 실행 필요성 주문  
개인 AI 넘어 “우리의 AI” 강조  
1인 1 에이전트 도입 등 제안  
업무 정의·데이터 축적 당부  
AI 본질은 운영개선으로 규정  
메모리·데이터센터 역량 부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이천시 SKMS 연구소에서 개최된 '2026 뉴 이천포럼'에서 “360도 전반위로, 전속력으로 AI 전환(AI·AI Transformation)에 돌입해야 할 때”라며 경영진과 구성원의 신속한 실행을 당부했다. 이는 그룹 차원에서의 AI 혁신 가속화를 주문한 것이다.

최 회장은 AI의 첫 단계로 업무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일을 정확히 정의하고 AI를 통해 무엇을

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데이터 축적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나의 AI”에서 “우리의 AI”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1인 1 에이전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구성원의 90% 이상이 AI를 쓰고 있지만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의 성과로 이어질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AI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개의 회장 아바타들이 각 회사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에이전트들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AI의 본질을 운영개선(O/I)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래 경쟁력은 O/I 능력에서 나오는 만큼 AI 기반의 운영개선으로 기본기와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 시대에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데이터센터, 에너지, 통신망, AI 애플리케이션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메모리·데이터센터 인프라·에너지 역량을 갖춘 SK가 AI 시대에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영진을 향해서는 위기 의식도 주문했다. 그는 “지금 전속력으로 전방위적인 AI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맞이한 절호의 기회는 다시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실행을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이천포럼에서 AI를 주요 어젠다로 삼아 혁신을 강조해왔다. 최고경영진부터 실무자까지 SK그룹이 AI/DT 등 혁신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3일 동안 AI 단일 주제를 가지고 집중 토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효성중공업, 美 초고압차단기 생산거점 확보

퀀타 자회사와 GCB 합작법인 설립  
초고압변압기 이어 차단기 현지 생산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가속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이 초고압변압기에 이어 초고압차단기 현지 생산 기반까지 확보하며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확산,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북미 전력기기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현지 생산체제를 앞세워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효성중공업은 자회사 효성HICO가 북미 에너지 인프라 솔루션 기업 퀀타(Quanta Services)의 자회사와 가스절연차단기(GCB) 합작법인 ‘효성HICO BREAKER, LLC’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오는 7월 설립된다. 10월부터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퀀타의 캐논스버그 공장에서 72.5kV부터 800kV까지 초고압차단기 생산에 들어간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미국 내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효성중공업은 현지 생산을 통해 납기 대응력을 높이고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고압차단기는 전력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기로 전력 수요 증가와 송전망 확충 흐름 속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퀀타는 미국 최대 전력·에너지 인프라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이다. 유틸리티,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데이터센터, 통신 등 전력 인프라 전반에서 사업 기반과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국내 전력기기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에서 초고압변압기와 초고압차단기 생산능력을 모두 갖추게 됐다. 이번 합작은 조 회장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미국 현지에서 퀀타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경영진을 만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부터 미국 전력시장 확대를 위해 퀀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초고압차단기뿐 아니라 직류솔루션 등 고도화된 전력 솔루션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조 회장은 “양사는 이미 차단기와 변전소 설비 공급부터 송전,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까지 협력을 이어오며 파트너십을 쌓아왔다”며 “탬피스 공장을 포함한 미국 사업의 현지화 운영 경험과 이번 합작법인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미국 전력시장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효성과 퀀타는 초고압차단기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직류솔루션과 데이터센터 등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올해 초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국내 전력기기 기업 중 역대 최대인 7870억원 규모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전력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 HD한국조선해양, 한국형 SOV 개발 추진

말콘과 지원선박 공동 개발  
친환경 핵심 기술 개발 주도  
기자재 국산화도 단계 추진

HD한국조선해양이 해상풍력 단지 운영에 필요한 지원선박(SOV) 국산화를 추진하며 국내 해상풍력 선박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해양 엔지니어링·해상 컨설팅 전문기업 말콘(MARCON LC)과 ‘한국형 해상풍력 지원선박 공동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SOV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유지·보수 작업을 지원하는 선박이다. 작업자들이 장기간 해상에 머물 수 있도록 숙소와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해상풍력 단지 내 정비 거점 역할을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육지에서 먼 해역으로 확대되면서 SOV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발전단지가 원해에 있으면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기상 악화 때 접근이 제한되는 만큼 작업자들이 선박에



김민욱 HD한국조선해양 상무(왼쪽)와 이준석 말콘 대표가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해상풍력 지원선박 공동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약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머물며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도 SOV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2024년 말 83.2GW에서 2034년 441GW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 삼성, 마이크로 RGB TV 알리기 총력

세계 주요 도시서 옥외광고 진행  
초미세 RGB 광원 기술 전면 부각

삼성전자가 차세대 프리미엄 TV ‘마이크로 RGB’의 글로벌 옥외광고를 세계 주요 도시 랜드마크로 확대한다. 지난 4월 출시한 마이크로 RGB TV의 화질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인지도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국내 명동 신세계스퀘어를 비롯해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홍콩 센트럴 엔터테인먼트 빌딩 등 글로벌 주요 거점에서 마이크로 RGB TV 옥외광고를 동시 전개한다. 상영은 지역에 따라 연말까지 이어진다.

마이크로 RGB는 칩 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μm·100만분의 1m) 이하인 초미세 적·녹·청(RGB) 광원 소자를 백라이트(BLU)에 적용한 디스플레이다. 각 소자가 독립적으로 빛과 색을 내 색 표현 영역

을 넓혔다. 광고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마이크로 RGB에 탑재된 ‘마이크로 RGB AI 엔진 프로(Micro RGB AI Engine Pro)’의 정밀 컬러 제어 기술이다. 수많은 RGB 소자를 AI 엔진으로 제어해 풍부하고 생생한 색감을 구현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안무가 세르지우 헤이스(Sergio Reis)와 협업해 대규모 댄서가 참여하는 메가크루(Mega Crew) 퍼포먼스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군무를 통해 수많은 RGB 소자가 정교하게 개별 제어되는 기술적 특성을 표현했다.

광고에서는 TV 통합 AI 플랫폼 ‘비전 AI 컴패니언(Vision AI Companion)’ 기능도 소개한다. AI 축구 모드를 통해 해설 음량을 조절하거나 실시간으로 선수 팀 정보를 조회하는 등 맞춤형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한화에어로, 사고 재발 방지체계 가동

안전문화혁신위원회 본격 출범  
화약 등 위험물 공정부터 점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기구를 출범시키고 안전관리체계 전면 점검에 나선다. 최근 대전사업장 사고 이후 위험물 취급 공정 전반을 다시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립기구인 ‘안전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사고 재발 방지 활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1명과 노동조합이 추천한 직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문일 명예특임교수가 맡는다. 문 위원장은 한국위험물학회 회장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을 지낸 공정 안전

및 화학공학 분야 전문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월 말까지 시스템 관리, 안전문화, 산업안전, 화공안전, 군용화약류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현장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조가 추천한 대표자 2명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안전문화혁신위원회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조직, 제도, 절차, 현장 운영 전반의 취약요인을 찾아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점검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화약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현황과 공정 위험성을 평가한다.

2단계에서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 안전투자 예산 운용, 안전 관련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등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한다. /원관희 기자